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에 대한 고찰*

김대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의 본질
- III.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의 상관성
- IV. 계승어 교육의 방향성
- V.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언어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계승어 교육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의 계승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우세한 언어가 있는 반면, 특정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 내 구성원만이 사용하는 소수 언어도 있다. 같은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7-B00625). 이 논문은 1차년도 기초 연구에 해당한다.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koreanedu@wku.ac.kr)

용하는 언어의 성격이 달라진다. 한국어의 경우, 한국에서 나고 자란 화자에게는 모국어가 되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제2언어가 되고, 한국어가 공용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개인적인 관심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배우는 화자에게는 외국어이며, 민족 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재외동포들에게는 계승어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듯 언어에 부여되는 다양한 성격에 따라 그 교육의 목표와 방향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계승어(heritage language)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언어와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¹⁾ 이는 제2언어(second language)나 외국어(foreign language)와는 다른 개념으로 계승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태생적으로 공유하는 언어 의식이 존재한다. 즉, ‘계승어’란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공용어 이외에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국적이나 언어 접촉, 구사능력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²⁾

모든 언어 교육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계승어 교육에서는 언어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한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의 구현 양상에 있어서

1) 계승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용어는 다양하다. 먼저 ‘소수 언어(minority languag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수(minority)’라는 낱말이 갖는 의미가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Peyton, Ranard & McGinnis, 2001). 또한 Baker and Jones(1998), Corson(1999), Wiley(2001) 등에서는 ‘heritage language’의 ‘heritage’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동시대보다는 전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공동체 언어(community language)’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고, Yeung, Marsh & Suliman(2000)에서는 ‘가정 언어(home language)’라고 사용하기도 하였다(김현정, 2010 : 18). 그러나 다른 용어들에 비해 ‘계승어(heritage language)’가 용어 자체로서 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2) 미국에서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들을 외국어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으로 관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언어들은 개인적으로 또 그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로 말하고, 읽고, 쓸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음성 언어 소통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이나 집단의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계승어란 용어는 한 사회 내에서 우세하지 않은 한 언어와 한 개인, 한 가족 또는 하나의 공동체 사이에서의 어떠한 연결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http://www.cal.org/heritage>).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흔히 언어 행위에 반영된 언어 이데올로기의 경우 언어 변화의 방향을 정당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계승어에 대해 언어적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또한 계승어 교육에 있어서 언어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은 계승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정이다.

계승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소통에 대한 접근이다. 어떤 한 사회에서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한 가지 이상일 때 이중언어 교육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육적 처치가 계승어 교육인 것이다. 이중언어 정책 하에 실시되는 계승어 교육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가 국가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계승어 교육의 도입과 실시는 단순히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적·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이 다차원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용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소통과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에 공존하는 문화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계승어 교육의 결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의해 후대에 국가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다원주의 국가의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 사회에서 주류 인구집단이 아닌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들은 뿌리 깊은 한국의 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의 신화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공의 문제가 되었다. 국민 생활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권순희, 2009 : 59). 이러한 환경에서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지닌다.

첫째, 언어적 관점에서 한 사회 내 통용되는 언어의 다양한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한 심층적 고찰과 언어 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와 계층어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학문적으로 그 양태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 문화상호주의에 대한 우세 언어 사용 집단의 배려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단일 민족 단일 언어 환경에 놓인 한반도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수용은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주창하는 논리는 한국 사회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언어에 대한 문화상호주의를 한국 사회에 설파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교육적 관점에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다각적 시각을 지닐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언어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내 언어 교육에 대한 다원주의적 입장이 나아가야 할 바를 고민해 봄으로써 언어 교육 영역의 확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적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닌 잠재력을 신장시켜 장래에 한국과 그들의 뿌리가 되는 나라와의 긍정적 가교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II.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의 본질

한국 내 외국인 체류자는 2009년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 1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의 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020년 254만 명(총 인구의 5%), 2050년 409만 명(총 인구의 9.2%)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혈통주의를 지향해 오던 한국 사회에 불어 온 이러한 변화는 정부, 학계,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를 이끌고 있다.

UNESCO와 OECD는 한국을 이미 다문화 국가(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 문화에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우종현, 2008 : 4). 한국도 국제적으로 자원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민족 또는 인종과의 공존과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다문화가 일찍이 자리를 잡은 캐나다,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뒤늦게 합류한 일부 유럽 국가와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다문화 현상이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의 민족 집단이 국가를 소유한다는 과거의 관념을 배척하며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속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단일민족국가를 탈피하여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민족이 각기 동등하게 그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둘째, 소수 집단이나 비(非)지배 집단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속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여 국가를 구성한 형태가 많이 있었다. 다문화 사회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 다문화 국가는 소수 또는 비지배 집단에게 행해진 역사적 불의를 인식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표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가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황정미 외, 2007 : 35).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하나의 현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단일문화에서 부정적으로 치부되었던 다양성·상이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 통합까지 고려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여 소수 집단을 사회 각 방면에서 평등하게 참여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형태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펼쳐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다문화에 대한 옹호이다. 즉, 다문화를 사회적으로 적극 인정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인데, 소위 ‘다문화주의’라고 명명한다.

다문화주의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문화나 언어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운동·정책을 말한다. 다문화주의는 강화된 보편주의의 한 형태로, 종래의 보편주의가 사적인 다의성을 허용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단일의 공통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공적 영역에까지 문화의 다양성·복수성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본다(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 545). 1970년대 초반 다문화주의가 처음 제창된 이후 그것은 넓게는 인종, 민족성, 장애인, 소수자 집단의 문제에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인종이나 민족을 중심에 두고 다문화주의를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다.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한다. 다수 집단에게는 ‘이해와 관용’을, 소수 집단에게는 ‘조절과 동화’를 요구한다.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게 이렇게 분리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다문화’가 ‘문화’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서 다문화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이념적 통제 수단으로 각 주체들의 역할을 분리한 것이다.

다문화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향유의 도구이며 유흥의 대상일 뿐이다. 수많은 대중 매체들이 우리 문화와 다른 특이하고 이색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문화를 ‘즐길거리’로 접

근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다문화를 다루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어쨌든 여러 환경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다문화 상황을 ‘우리 모두는 한국인’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온정주의를 통해 하나로 통합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주의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온정주의적 시각에 다름 아니다. 이는 차이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내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을 아랑 있게 받아주어야 한다는 담론, 통합을 통해 국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담론들이 온정주의적 다문화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주의적 담론에서 다문화가 전제로 하는 차이들은 통합을 전제로 하는 차이일 뿐이다. 만약 그러한 차이들이 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균형과 조화의 바깥에 있는 차이는 전혀 배려 받지 못한다(서용순, 2011 : 10).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중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집단은 다수가 아닌 소수 집단이다. 다수 집단에게 요구되는 ‘이해와 관용’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소수 집단에게 부여된 ‘조절과 동화’는 개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수 집단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고 있는지는 ‘통합’이라는 대전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변인이다. 그러나 사회가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양태는 관심뿐만 아니라 감시의 성격도 지닌다. 사회에 순응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것은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표면적 통합에 불과하다.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이 한 사회 내에서 공생을 넘어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수 집단이 가진 민족적·문화적 권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의 소수 집단은 가족이 한 단위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에게 있어 ‘문화’는 가족원 개개인의 삶과 가족 관계 전반, 나아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실제 생활에서 원활히 소통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들은 일반적 주류 집단이 지니기 힘든 독특한 자질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

제적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은 물론 다문화 사회 전개에 대한 주류 사회의 수용성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이선 외, 2010 : 4). 다문화 가족이 지니는 언어, 문화적 배경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은 사회의 내적 통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Ⅲ.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의 상관성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 집단이 문화적 특수성을 자산으로 발전시켜 그들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에 대해 선택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이중언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되는데 가정 내의 언어문화³⁾와 특정 언어나 그 언어의 학습에 대해 의사결정의 주체가 지닌 가치관이나 신념이 학습할 언어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 내 존재하는 비주류 언어인 계승어에 대한 학습은 주로 부모의 언어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데올로기란 신념이나 행동 양식 또는 가치관의 확장된 체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언어 이데올로기를 정의하면, 언어적 행동과 태도에 관한 신념이나 행동 양식, 가치관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Silverstein(1979 : 173)에서는 “주어진 언어의 구조와 사용에 대해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언어에 대한 화자의 분명한 신념”이라고 하였으

3) Schiffman(2001)은 언어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언어문화(linguistic culture)란 언어의 사용자가 그들의 문화 중 언어와 관련하여 갖는 사고, 가치관, 신념, 태도, 편견, 신화(myth), 종교적 구속, 그리고 그 외 모든 문화적 산물의 총체이다. 또한 언어문화는 전달 및 계승, 언어의 문자화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글을 읽고 쓰는 능력(문식성)의 가치와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그 자체가 갖는 존엄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며, Rumsey(1990 : 346)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 화자들이 공유하는 있는 상식적 가치관”이라고 하였다. 본래 ‘언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사회과학 내에서 이미 대중화된 개념인 ‘이데올로기’를 언어인류학 내에서 재검토하여 사회 이론과 언어 현상을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Woolard, 1998). 그러나 언어 이데올로기가 사회 구조와 언어 수행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관념은 언어 이데올로기가 언어 태도와 언어 행동을 수반하거나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신념은 사회적, 정치적 범위 안에서 주체의 인식과 행동을 견인한다(Fine & Sandstrom, 1993 : 24).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행동은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모국어 교육 환경과 계승어 교육 환경에서 이데올로기적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언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언어에 따라 달리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으로서의 언어 이데올로기가 아닌 계승어 교육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언어 이데올로기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이데올로기란 주어진 환경에서 특정 언어에 대한 태도와 언어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신념이나 가치관이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종종 언어 태도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Baker(1992 : 14)에 따르면, 언어 이데올로기와 언어 태도의 차이는 학문적인 뿌리를 달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사회학과 인류학의 영역(Rumsey, 1990 ; Schieffelin, Woolard & Kroskrity, 1998 ; Silverstein, 1979)임에 반해, 언어 태도는 사회 심리학과 관련된 개념(Gardner, 1985 ; Gardner & Lambert, 1972)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 태도는 특정 언어가 보이는 어떤 양상에 대한 특정한 반응을 말하며, 언어 이데올로기는 한 언어 혹은 집속한 언어와 관련된 신념의 통합된 체계를 의미한다(King, 1999 : 7).

언어 이데올로기는 개인적임과 동시에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 사용과 사회 구조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Woolard & Schieffelin, 1994 : 72). 만약 사회의 구조적 환경에 따라 언어 사용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파악할 수 있는 열쇠는 언어 이데올로기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⁴⁾ 즉, 언어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적 배경에서 표출되는 언어 태도와 관찰된 언어 행동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영향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언어 이데올로기, 언어 사용, 사회 구조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위치해 있음은 바꾸어 말하면, 다문화 가족 내 언어 사용 양상은 사회의 구조적 환경과 언어 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중언어 사용자로 키울 것인가 여부에 대한 ‘언어 계획(language planning)’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Grosjean(1982 : 169)은 철저히 ‘계획된 일(planned affair)’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외형적인 구성 면에서 이중언어 가족이라고 할 만한 환경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습득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이중언어의 사용은 부모가 자녀를 이중언어 사용자로 키우기로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의도적이고 계획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Piller, 2001 : 62, 김이선 외, 2010 : 12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족 부모의 언어 계획은 공용어가 아닌 계승어를 전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태도와 관련된 현상학

4) 언어의 생존과 사멸, 전수와 계승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Hobsbawm (1990)에 따르면, 19세기 중엽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정복할 때, 피지배 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국수주의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한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집단적 희생물인 언어와 문화가 적대적인 것으로 취급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지배 민족은 거시민족적 팔레트 위에 놓인 다양한 색상을 과시하려는 듯 약소민족의 민속적·역사적 전통과 방언 및 소수 언어를 보존하고 장려할 수 있었다. 더구나 더 큰 국가에 통합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약소민족 또는 민족국가조차 미시 문화와 거시 문화 간의 차이를 화해 불가능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대에 적응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Hobsbawm, 1990, 강명세 옮김, 1994 : 55).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어 교육을 장려하는 사회의 경우, 주류 사회는 거시-주류민족적 관점에서 민족어 교육으로서 계승어 교육을 허용하는 셈이고, 소수 집단은 그들의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미시-소수민족적 관점에서 계승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적 차원이 아닌 시대적 상황이나 사고, 가치관이 개입된 언어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Lo Bianco(2003)는 계승어 소통의 주체들이 특정 환경을 고려하고, 계승어의 습득·유지·재습득에 대해 가능성을 타진할 때 언어 이데올로기는 세대간 전수를 통한 계승어의 유지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부연하여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의 전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장악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어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맥락 안에서 다른 언어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부각하여 작용하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그 핵심은 언어에 대한 특정 이데올로기 또는 특별한 언어에 관련된 특정 언어 문화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계승어의 학습과 소실, 재습득, 문식성 발달 또는 공동체 내의 소통과 어떠한 충돌을 일으키는 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Lo Bianco, 2003 : 4).

Jeon(2008)은 계승어 전수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 공동체가 갖는 언어 이데올로기를 동화주의 이데올로기(assimilationist language ideology)와 다원주의 이데올로기(pluralist language ideology)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계승어 교육의 실시 여부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계승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다문화 가족 공동체는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며, 계승어 교육을 실시하는 가족에게는 다원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비주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주류화에 대한 강한 애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언어적 관점에서, Wiley & Wright(2004)는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어 이외의 언어 사용에 대한 관용이나 이해의 결핍이며, 이것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또는 학문적 성공을 위한 열망이 투영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다원주의 이데올로기는 접촉하는 모든 언어에 대해 나름의 의미 있

는 가치를 부여하는 신념이다. 즉, 다문화 가족 공동체가 지닌 다중 언어 환경과 본질을 인식하고, 다중 언어 환경이 사회 공동이 자산으로서 육성되어야 할 국가적 자원으로 규정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은 모든 언어에 대해 동등한 언어 사용 권리를 지님을 인정하고, 교육을 통해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들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언어적 가치관이다(Schmid, 2000 : 60).

계승어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계승어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전수하려는 친계승어 이데올로기(pro-heritage language ideology)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계승어를 공용어 습득의 간섭 요인으로 간주하여 주류 사회로의 빠른 적응과 흡수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반계승어 이데올로기(anti-heritage language ideology)이다.

친계승어 이데올로기는 계승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지닌다. 첫째, 계승어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이며,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최선의 언어이다. 둘째, 계승어는 전통적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셋째, 계승어는 소수 언어 집단의 기본적인 구두 언어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계승어는 다문화 가족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Hornberger, 1988 : 226).

반계승어 이데올로기는 공용어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와 다름 아니다. 공용어 우월주의는 계승어 교육의 불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설한다. 첫째, 한 언어의 전수와 습득, 계승어에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중언어의 습득과 사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이다. 둘째, 공용어에 대한 우월의식의 반작용으로 비주류적 성격을 지니고 사회적 비표준어인 계승어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가치관 때문이다. 셋째, 언어에 대한 사회적 진화주의 관점에서 계승어는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공용어 공동체에서는 생존과 확산이 불가능할 것(Dorian, 1998 : 10)이라는 가정이다.

다문화 가족 공동체가 이중언어 환경 자체를 결핍 요인(deficit factor)으로 간주할 때와 자산 요인(asset factor)으로 보고 그 가치를 인정할 때는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임은 자명하다. 이중언어 환경에서의 언어 이데올로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사회적·정치적으로 ‘잘’ 또는 ‘잘못’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다문화 가족을 안고 있고 그들과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 또는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국가(사회)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언어 행동을 인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IV. 계승어 교육의 방향성

다문화 가족은 구성원들 간 존재하는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일상의 많은 상황에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문화 가족 내에 내재된 이중언어의 잠재력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중언어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역량 때문만이 아니라 이중언어 사용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된다(김이선 외, 2010 : 17). 이러한 점은 부모의 언어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문화 가족에게 있어 특별한 함의를 지닌다.

다문화 사회 또는 다문화 가족 내 언어 행동은 언어 이데올로기의 현상적 표출이다. 하나의 언어만을 통한 소통 또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통한 소통이 가진 사회적·언어적 가치와 부작용은 언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언어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신창용(2006)에서는 영어 중심의 언어 획일주의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영어가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⁵⁾로 군림하는 것은 언어적 다양성을

좌초시키는 획일화된 언어 제국주의를 낳고 국제 사회의 고른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가치를 표현하고 사고를 규정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영어의 링구아 프랑카화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은연중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소수 언어를 인정하고 세계 무대에서 고루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May(2005)에서는 소수민족 언어에 노출될수록 주류 사회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늦어지거나 소수 언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드러나면서 주류 사회의 적응을 느리게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가 존립 차원에서 단일 언어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권순희, 2009 : 69-70에서 재인용). 이러한 대립된 논의는 범위를 다문화 가족으로 좁히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어를 링구아 프랑카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승어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교육하고 전수할 것인지는 적지 않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고민의 결과로 소통 언어를 선택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적이다. 교육의 대상이 어떤 언어이든간에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피교육자가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적 처방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반계승어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다문화 가족에게는 한국어 교육이, 친계승어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다문화 가족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계승어 교육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한국 사회는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언어 통합’까지 도모하여 주로 한국어 교육에만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인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최근에 들어서야 한국 정부가 다문화 가족이 지니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적 자원으로 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5) 링구아 프랑카는 모국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상호이해를 위하여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링구아 프랑카는 특정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으로 정의하는 표현이다(www.wikipedia.org).

<표 1> 계승어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부 정책(김이선 외, 2010 : 4-6)

부처 및 정책 계획	발표시기	세부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2006. 5.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능력을 갖춘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 후 학교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장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2008.11.	•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역량 개발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별 교육 강사를 양성,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가브랜드위원회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브랜드 비전과 전략'	2009. 3.	• 다문화 가족 자녀를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 이중언어자로 성장 지원 —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엄마나라 언어 배우기 프로그램 실시 —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다문화 가족 지원 개선 종합대책'	2009. 6.	• 이중언어 교육 실시 확대 — 방과 후 교실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기회 확대 : 이중언어 교사 양성(80명)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2010. 5.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부모-자녀 간 소통 증진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 이중언어 강사 양성(교과부) : 한국어·계승어 등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 가족 학부모 선발, 집중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실(여가부) : 방학 기간 중 52개 교실 운영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2011. 3.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도 확대(92개 센터→174개 센터) — 2010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본격 시행

언어적인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 계승어 교육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한국 사회로의 수동적 동화’가 아닌 ‘한국 사회와의 능동적 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게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특수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화가 출발되는 계승어 공동체에서부터 다양한 언어, 문화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세대 간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단지 언어, 문화의 기능적 전수만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특정한 언어,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결혼 이민자와 비교해 1차적 사회화, 문화화를 거쳐야 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는 가족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언어적 요소의 획득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가족 내외의 여러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만큼(김이선 외, 2010: 7) 지침이 될 만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이중언어 자산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계승어의 세대 간 전수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승어 교육의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수 언어 습득 및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가족 내 소수 언어의 공유는 문화적·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심층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계승어 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은 국제기구의 움직임으로도 뒷받침된다. 1989년 11월 29일 UN 총회에서 결의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9조 다’항에서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약 인준국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교육시킴에 있어서 자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 또는 이민 아동의 출신국 문화에 치우친 편향된

교육에서 벗어나 이민 아동들이 양 국가의 문화와 가치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이재분 외, 2010 : 20).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게 주류 사회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계승된 언어와 문화를 학습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러한 기회와 가치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류 사회의 발전과 개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 존재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류가 아닌 것을 부인하거나 멸시하는 경향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가족 내 소통을 위한 ‘가족 언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족 언어 정책(family language policy)’이란 가족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결정을 의미한다. 부모는 언어 학습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모든 다른 언어 정책과 마찬가지로 가족 언어 정책이 언어에 대한 믿음과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King & Fogle, 2006 : 696). 언어 재생산/이동에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한 만큼 ‘가족 언어 정책’이 언어 정책의 일부로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언어 정책’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공적 행위 영역만을 의미하지만, 지역 사회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언어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내 언어 계획이 언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Luykx, 2003).

다문화 가족 내 존재하는 소수 언어 및 문화는 단순한 외국어와 외국 문화가 아니라 가족의 언어, 가족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김이선 외, 2010 : 210)이다. 이중언어 잠재력을 문화적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승어 교육을 위한 가족 내 소통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언어 습득을 위한 가족 내 역할 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 언어

와 문화에 있어서 차이와 특수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와 함께 또한 다원적 소통의 가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구조이다. 가족 구성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가족 구성원이 상호적으로 실현하고 수행하는 것을 가족 역할이라 한다. 가족 성원의 지위는 출생, 성별, 연령 등의 생득적인 것과 혼인, 양친자 등의 획득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지위는 역할 기대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역할 기대와 수행이 항상 비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보완적, 협력적 관계에 있을 때 가족 집단의 통합이 이루어진다(이철수와, 2009 : 36). 다문화 가족의 언어적인 이질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은 부모 각자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습득과 교육을 둘러싼 구성원 간의 역할은 사용의 주체,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사용하는 상황(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과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부모 각자가 자신의 모국어를 통해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갖는 한 쪽 부모의 소수 언어 습득에 대한 배타적이지 않은 인식과 태도, 더 나아가 가족 역할의 분배와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이다. 가족 내 소수 언어 사용에 대한 상황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는 하는 것도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넷째, 다문화 가족 외부에서의 계승어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언어가 언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소수 언어의 사용이 가족 내부에서만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용될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언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회의감을 떨치고 계승어에 대한 태도와 언어 행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계승어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닌다. 일차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소수 언어에 대한 유창성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이차적으로는 이중언어 사용자를 주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

제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수 언어에 대한 피상적인 접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피교육자에 대한 자아 및 문화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그들이 지닌 잠재력과 기능성에 대해 건설적인 상을 제시하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전문 교사의 양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소수 언어 사용 공동체의 활성화 등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의 계승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두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현상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의 변화를 수반한다. 단일 문화만이 존속하던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치부되었던 민족 간, 문화 간 상이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 통합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형태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펼쳐진 것이다. 이렇게 다문화를 사회적으로 적극 인정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다문화주의라고 한다.

다문화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 통합을 능동적인 형태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소수 집단이 지닌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장려해야 한다. 특히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소수 집단이 지닌 언어 이데올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방향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언어 이데올로기는 계승어에 대해 언어 태도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제가 된다.

다문화 가족에게 있어서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는 인식하는 관점에 따

라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계승어 교육과 관련한 언어 이데올로기도 이 두 쟁점을 반영한다. 하나는 계승어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전수하려는 친계승어 이데올로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계승어를 공용어 습득의 간섭 요인으로 간주하여 주류 사회로의 빠른 적응과 흡수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반계승어 이데올로기이다.

어떤 언어에 대한 가치관이며 신념인 언어 이데올로기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며, 평가의 문제도 아니다. 다문화 가족과의 통합을 지향하는 국가 또는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계승어 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도는 한국 사회와의 능동적 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계승어의 세대 간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계승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첫째, 소수 언어 습득 및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족 내 소통을 위한 ‘가족 언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언어 습득을 위한 가족 내 역할 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다문화 가족 외부에서의 계승어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계승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언어와 언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닌 민족적·문화적 정체성, 언어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의 구현, 동화와 통합의 경계에서의 갈등과 고민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계승어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인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개인적 이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본 논문은 2012. 2. 27. 투고되었으며, 2012. 3. 9. 심사가 시작되어 2012.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 은(2006), “이중 언어 사용 아동의 부모들이 갖는 모국어에 대한 가치 기준과 경험적 의미”, 『언어치료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언어치료학회.
- 권순희(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 김이선 외(2010),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사용 및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27-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정(2010), “계승 한국어 교육의 개념과 발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어교육학석사 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박정은(2007), 『다문화 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 교육: 이주 가정과 국제 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일지사.
- 서용순(2011), 「‘하나의 세계’와 다문화 상황의 진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철학적 성찰, 오늘의 문예비평 82호(계간), 2011 가을호, 산지니.
- 신창용(2006), “EU의 다중언어정책과 소수언어 카탈류나어”, 『이중언어학』 30집, 이중언어학회.
- 우종현(2008), “다문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방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원진숙(2007), “세계화와 국어교육: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재분 외(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27-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 이철수 외(2009), 『사회복지학 사전』, 블루피쉬.
-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2010),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상)』, 한국사전연구사.
- 최진숙(2008), “과테말라의 마야어 표기법 ‘경합’에 대한 고찰: 언어 이데올로기와 마야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1집 제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황정미 외(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aker, C.(1992). *Attitude and Language*. Clevedon : Multilingual Matters.
- Baker, C. & Jones, S. P.(1998). *Encyclopedia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Clevedon, UK : Multilingual Matters.
- Corson, D.(1999). *Community-based education for indigenous cultures*. In May, S.(ed.).

- Indigenous community-based education. Clevedon, UK : Multilingual Matters.
- Cummins, J.(1983). *Heritage language education : A literature review*. Ontario Department of Education, Toronto.
- Dorian, N.(1998). *Western Language Ideologies and small-language prospects*. In Grenoble, L. & Whaley, L.(eds.). *Endangered Languages :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e, G. A., & Sandstrom, K.(1993). *Ideology in action : A pragmatic approach to a contested concept*. Sociological Theory. 11(1). 21-38.
- Gardner, R. C. & Lambert, W. E.(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 Newbury House.
- Gardner, R. C.(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 E. Arnold.
- Hobsbawm, E. J.(1990).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옮김(1994). 창작과 비평사.
- Hornberger, N. H.(1988). *Language Ideology in Quechua communities of Puno, Peru*. Anthropological Linguistics 30(2).
- Jeon, M.(2008). *Korean Heritage Language Maintenance and Language Ideology*. Heritage Language Journal, 6(2). National Heritage Language Resource Center.
- King, K.(1999). *Language Ideology and Heritage Language Educ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Stamford.
- King, K. & Fogle, L.(2006). *Bilingual Parenting as Good Parenting : Parents' Perspectives on Family Language Policy for Additive Bilingualis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9.
- Lo Bianco, J.(2003). *Cluster of research areas*. In R. Campbell & D. Christian(Eds.). *Directions in research :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eritage language*. Heritage Language Journal, 1(1).
- Luykx, A.(2003). *Weaving languages together : Family language policy and gender socialization in bilingual Aymara households*. In Bayley & Schecter(eds.).
- May, S(2005). *The Politics of Homogeneity : A Critical Exploration of the Anti-bilingual Education Movement*.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lingualism. ed. J. Cohen, K. T. McAlister, K. Rolstad & J. MacSwan. M A : Cascadilla Press.
- Peyton, J. K., Ranard, D. A., & McGinnis, S.(eds.)(2001). *Heritage lanuages in America : Preserving a national resource*. Washington, DC & McHenry, IL :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Delta Systems.

- Rumsey, A.(1990). *Wording, meaning and linguistic ide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92(2).
- Schlieffelin, B. B., Woolard, K. A., & Kroskrity, P. W.(eds)(1998). *Language Ideologies : Practice and Theory*. New York an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Schiffman, H.(2001). *Problems with Language and Ideology*. Handout for LING 540, Language Policy.
- Schmid, C.(2000). *The politics of English Only in the United States*. In R. D. Gonzalez & I. Melis(Eds.). *Language ideologies : Critical perspective on the official English movement*. Mahwah, NJ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Silverstein, M.(1979). *Language Structure and Linguistic Ideology*. I P. R. Clyne, W. F. Hanks, and C. L. Hofbauer(eds.). *The Elements : A Parasession on Linguistic Units and Levels*. Chicago : Chicago Linguistic Society.
- Wiley, T. G.(2001). *On defining heritage languages and their speakers*. In J. K. Peyton, D. A. Ranard, & S. McGinnis(eds.). *Heritage lanuages in America : Preserving a national resource*. Washington, DC & McHenry, IL :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Delta Systems.
- Woolard, K. A.(1998). *Introduction : Language Ideology as a Field of Inquiry*. In Bambi Schieffelin, K. A. Woolard, and P. V. Kroskrity(eds.), *Language Ideologies : Practice and The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Yeung, Y. S., Marsh, H. W., & Suliman, R.(2000). *Can two tongues live in harmony : Analysis of the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1988(NELS88)*. Longitudinal data on the maintenance of home languag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4).

<http://www.cal.org/heritage/>

<http://www.nhlrc.ucla.edu/>

<초록>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에 대한 고찰

김대희

이 연구는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의 계승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 사회가 사회 통합을 능동적인 형태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소수 집단이 지닌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특히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소수 집단이 지닌 언어 이데올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계승어에 대해 언어적 태도와 행동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계승어 교육과 관련한 언어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계승어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전수하려는 친계승어 이데올로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계승어를 공용어 습득의 간섭 요인으로 간주하여 주류 사회로의 빠른 적응과 흡수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반계승어 이데올로기이다.

계승어 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도는 한국 사회와의 능동적 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계승어 교육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수 언어 습득 및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족 내 소통을 위한 ‘가족 언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언어 습득을 위한 가족 내 역할 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다문화 가족 외부에서의 계승어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핵심어】 계승어, 계승어 교육, 언어 이데올로기,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

<Abstract>

A Study on the Language Ideology and
Heritage Language Education

Kim, Dae-h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rections of heritage language in multicultural society by exploring the correlation between language ideology and heritage language education.

A society should embrace the values and beliefs of minority group to attain the positive social integration. Especially, in language usage the mainstream society need to take note the language ideologies. Because the language ideology controls the linguistic attitude and behavior about heritage language.

Language ideologies operating in heritage language education can be gauged on a continuum of pro-heritage language ideology on one end and anti-heritage language ideology on the other. The former promotes the use of heritage language by authorizing the meaningful valuation individually and socially.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opposes the heritage language education because it interferes in early adaptation to mainstream society.

The directions for heritage language education are as below : 1) the spread of positive awareness about the acquisition and use of minority language, 2) the establishment of family language policy, 3) the setting up family role structure, and 4) the expansion of communication opportunity through heritage language.

[Key words] heritage language, heritage language education, language ideology, bilingual education, multi-culture,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family